

목포,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최대 150만원

목포시가 4차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AI 등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gcvb5678@kore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시 청년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해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미래인재 양성에 목포시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

6000여만원 투입... 임신부 등 건강 상담 등 제공

진도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돼 의료시설 기반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출산 단계의 예방적 건강관리, 양육 지지 등 각 가정에 개별화 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000여만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 건강평가를 통해 기본방문과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에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건강 상담과 우울 평가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평가 등을 제공한다.

또 지속 방문은 우울감,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들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여름철 집중 호우 사전 대비 만전

상습 침수 지역 펌프 설치·배수 시설 점검 등

올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진군이 상습 침수 지역에 펌프를 설치하고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26일, 만덕 간척지 내 유리온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 양수기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 7개소에 군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시설하우스 등 상습 침수 지역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사전 대응을 통한 배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설치된 배수 펌프장 7개소와 배수 시설을 점검 완료했으며, 수방자재 및 인력배치 현황,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해 집중 호우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또한 군은 50ha 내외의 대규모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농경지 환경을 개선해갈 계획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ESG 경영 완성해 백년대계 세우겠다"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지수 최상위

5년 연속 예산 1조... 경제활성화·미래성장동력 육성

민선8기 1주년 기자 간담회

"민선 8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군청에서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를 갖고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ESG 경영을 완성해 해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SA), 전남도내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또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민선 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했다.

청정해남(E)과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명 군수는 해남형 ESG를 '이런(E) 사회로(S) 가져(G)'란 의미를 담아 해남군 장기발전동력으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이래 5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예산규모로 전국 군 단위 최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속

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 해에는 국도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414억원을 확보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누적판매액 50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

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해남미소 및 로컬푸드 판매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경영행정을 통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군정성과를 구체화해 군민의 혜택으로 되돌리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계절 축제의 정착과 함께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개관, 땅끝꿈길랜드 조성,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복합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8기 해남군은 민선 7기 역대 최대 성과를 이어 다 시한반 대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 해산물 우수성은 해저 맥반석과 해수 성분 영향"

'해수 성분과 해산물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완도산 해산물의 우수성은 해저의 맥반석 기반암과 갯벌, 해수 성분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도군의 의뢰로 순천대 김정빈 교수와 전남대 김태훈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완도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결과 확인됐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완도지역 연안 해수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해수와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팀은 완도의 해산물 양식장 주변 해수를 대상으로 계절별 총 4회 영양염류와 미량금속 성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완도지역 해수의 유기물

(유기탄소)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다.

또 완도 해산물의 원소 함유량 분석 결과 갯벌과 암석의 지화학적 영향으로 칼륨, 나트륨, 아연 함량이 높으며 전복과 바지락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바지락과 꼬막은 철과 아연의 함량이 높았다.

완도해역 대부분 정화 작용이 우수한 맥반석으로 형성돼 청정한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조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산물과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 인재육성 장학금 4억 4000만 원 지급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장학금'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330명(우수대학생 137명, 내고장진학 34명, 저소득 장학생 87명, 민학도 18명, 다문화 가정 25명, 낙도 장학생 8명, 어가 및 저소득자녀 21명)에게 장학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생을 전원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이사장은 "인재육성 장학금이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박정태 기자

My Bucket List

영암 관광지 추천

☑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린랜드

#월출산·기찬릿길·구림전통마을